5 자유연제 II

부산 경남지역의 소아화상 환자의 임상적 고찰

하나병원 화상센터

이 주 봉

(배경) 소아화상의 경우 성인과 다른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상 좀 더 세심한 관리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피부손상의 정도에 따라 성장에 따른 기능적, 미용적으로 추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요한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 본원에 입원한 소아환자들의 임상적 양상을 알아보고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 1년간 본원에 입원하였던 만 15세 이하의 소아 환자 267명의 의무기록을 성별, 나이분포, 원인, 발생장소, 면적, 깊이, 발생부위, 치료방법 등에 대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본원에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 화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던 총 1136명 중 소아환자는 267명으로 23.5%를 차지하였다. 전체환아 중 남아 145명(54.3%), 여아 122명(45.7%)이었으며, 이 중 1세 미만 환아는 48명(18.0%), 1세에서 6세 환아는 158명(59.2%), 7세에서 15세 환아는 61명(22.8%)이었다. 화상의 원인은 열탕 화상 204명(76.4%), 접촉 화상 36명(13.5%), 화염 화상 14명(5.2%), 스팀 화상 6명(2.2%), 전기 화상 5명(1.9%)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집안 또는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89.5%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화상 면적은 9% 미만의 경우 174명(65.2%), 9-20% 86명(32.2%), 20%이상의 경우 7명(2.6%)이었으며 부위별로는 사지 124명(46.4%), 수부와 족부 100명(37.5%), 체간 89명(33.3%), 안면부 81명(30.3%), 둔부, 회음부 순으로 조사되었다. 입원 환아들의 화상 깊이는 표재성 2도 화상을 포함한 심재성 2도의 경우가 244명(87.1%), 3도 화상 36명(12.9%)이었으며 이 중 28명(10.9%)에서 자가피부이식술로 치유되었고 101명(36.7%)에서 동종배양상피(Kaloderm®)가 사용되었으며 146명(53.1%)의 경우 화상드레싱으로 치료되었다. **(결론)** 소아화상의 경우 소아의 연령이나 사회 경제적인 여건, 생활 습관의 차이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소아는 성인에 비해 전신적 기능이 미숙하며 판단력 및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사내용에서 보면 집안에서 발생한 경우(89.5%)가 거의 대부분이며 원인으로는 열탕화상(76.4%)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아 화상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보다 적극적인 보호자들에 대한 예방교육 및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